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 욱
배재대 교수

민주주의의 현대인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현대인 사이에서 절대적 가치로 신봉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것이며, 따라서 더 많은 민주주의가 더 적은 민주주의보다 항상 우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개념 그 자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민이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한다는 그 원리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개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현실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

민주주의의 한계와 위험성

한다. 국민이 주인이라고는 하나 국민은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 중의 하나의 다수결주의이다. 의견이 갈릴 때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수결주의는 심각한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바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이다. 다수결주의 하에서는 다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기본권마저도 짓밟을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 다수와 소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경우 소수는 항상 소수로 남아 자신의 의견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억울함을 겪게 된다.

학자들들은 다수결원칙에 충실한 민주주의를 다수제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반대로 기본적으로 다수결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소수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하여 합의와 협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를 합의제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선거제도 중에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가 다수결원칙에 충실한 제도라면, 비례대표제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제도이다. 비례대표제 하에서 여성 등 소수 세력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나치 독일은 당시 독일 국민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현시대 독재자들 또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받으며 자신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갔다. 민주국가 내에서도 정치인이 지나치게 대중의 의견만을 좇거나, 혹은 대중의 의견을 구실로 자신의 숨겨진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 행태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는 포퓰리즘(populism) 혹은 대중연합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받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및 정당공천제 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작 다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별 진전이 없고, 소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서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한다. 국민공천제의 주요 명분은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 제도는 대중영합주의 혹은 과잉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제도가 초래하는 많은 부작용(높은 비용, 정치 신인에게 불리함)은 차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권한은 당연히 정당에 있는데, 이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정당이 정당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정당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전 세계에서 국민공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 제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선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이 제도는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유럽의 당비 내는 당원 개념보다는 심리적인 지지자로서의 당원 개념을 중시하는 미국의 특수한 정치적 맥락에서, 일부 주에서 특정 정당에 등록되지 않은 정당 지지자들에게도 예비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해 준 것일 뿐이다.

한국도 진성 당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등록된 당원 외에도 정당 지지자의 의견을 공천에 일부 반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동안에도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국민공천제라고 부르면서, 마치 정당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제도로 포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다고 할 때, 그 숨은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고



김 윤 석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유니버시아드와 광주경제

regional domestic product)도 삼성 광주공장과 기아차 광주공장에 지나치게 의존되어있어 광주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마침 당시 광주시장의 '0 순위'가 '유니버시아드 유치'였다. 절만하면 도시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를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신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유니버시아드 같은 국제스포츠대회가 개최된다면 도시의 낮은 국제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부족한 사회간접시설(SOC)을 보강할 기회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기획재정부 시절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파견을 통해 쌓은 국제행사 유치경험과 1997년 IMF 외환 위기 시에 우리나라 보호시장을 지키기 위한 협상의 실무자로 일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정부는 물론이고 국내외 언론과 시민들 스스로 성공한 대회라고 평가하진 않겠지만 감사한 마음뿐이다. 대회가 끝나자 그동안 광주유니버시아드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느라 한동안 정신없이 바빴다.

유니버시아드 성공의 유산을 어떻게 광주발전의 도구로 전환할지를 고민하면 다시 광주의 경제지표를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9년 전 대회를 유치했던 때와 큰 변화가 없었다.

유치 당시 145만이던 인구가 148만으로 다소 늘었지만 대전광역시가 153만이 되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를 추월당한 상태다. 지역내 총생산(GRDP)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2.1%인 29조8000억 원이다. 특별·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로 그나마 다형이다. 특별·광역시 평균인 17.3%를 웃도는 통계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면면을 들여다 보니 상황은 오히려 심각하다.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매출이 광주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 중 어느 한 기업만 광주를 떠나도 광주경제가 순식간에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헛된 제조업시장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핀란드의 '노키아' 사례가 떠올랐다. 2010년 핀란드 경제에서 불과 GDP의 4%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키아의 도산은 핀란드 국가경제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계경제가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특정지역에만 그 영향이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광주경제는 지역만의 시각에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세계경제의 열매가 광주경제를 풍요롭게 할까 자신적 평등성보다는 경제효율성을 우선 해

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이 전 세계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고공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저성장의 악순환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투자 시 고용 유발계수가 2005년 10.1명이던 데서 2013년 8.8명으로 줄어들었다.

세계는 이러한 저성장을 타개할 신성장동력을 정보,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 찾고 있다. 그 영역은 취미, 오락, 패션 등의 서비스 산업으로까지 그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유니버시아드를 도시발전의 촉매제로 선택했던 9년 전을 떠올리면 광주는 스포츠분야에서는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큼 훌륭한 인프라를 확보했고, 높은 국제적인 인지도를 갖는 도시로 성장했다. 스포츠는 더 이상 그저 선수들이 땀 흘리는 운동경기로 가볍게 흘러 붙어 분야가 아니다. 스포츠는 매니지먼트, 컨설팅, 스포츠 용기구, 교육, 컨벤션 등 다양한 분야로 파생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광주는 이미 많은 조건을 갖췄다. 어떻게 경제마인드를 풀어 놓을 것인지를 신중히 고민할 때다.

유치에서부터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대회개최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성공의 열매가 광주경제를 풍요롭게 할까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

의료칼럼



박 정 현
아이안과 원장

눈꺼풀 처짐

때부터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나 이를 지배하는 신경이 약해서 발생하는 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목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처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위축되며 정서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

그리고 후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만성 진행성 외안근마비, 안인두 이영양증, 근긴장성 이영양증, 중증 근무력증, 부신피질호르몬 이상과 같은 진행성 신경계통 질환의 첫 신호로 안검하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원인을 밝혀 전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안검하수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안검하수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은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 안운동, 안검하수의 정도 그리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기능 정도 등 검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도의 안검하수는 눈꺼풀올림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넓힘줄 교정술이나 절제술을 시행하며, 심한 안검하수는 자가

도 교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친구들과의 놀림 등으로 외모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를 갖게 되고,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위축되며 정서불안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안검하수는 안검하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빨리 원인을 밝혀 전신적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안검하수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안과를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안검하수는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은 시력을 비롯한 눈의 기능, 안운동, 안검하수의 정도 그리고 눈꺼풀 올림 근육의 기능 정도 등 검사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술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경도의 안검하수는 눈꺼풀올림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넓힘줄 교정술이나 절제술을 시행하며, 심한 안검하수는 자가

혹은 보존된 대퇴근막이나 실리콘관을 이용한 이마근 거리기술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동공을 가리는 정도의 심한 선천성 안검하수는 보통 전후에 교정해야 시력발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수술 시기에 대한 결정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술에도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양쪽 눈 모양이 다를 수 있으며 재발할 수 있다. 특히 눈꺼풀올림 근육 절제술을 한 경우에는 근육의 힘이 약할수록 재발을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술 후에 눈을 조금 뜨고 자는 경우도 있다. 안검하수 수술은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수술이 아니라 근육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위눈꺼풀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수술이다. 따라서 눈꺼풀을 올린 만큼 수술 후에는 눈이 잘 감기지 않을 수 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일 것이다. 특히 성장기에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안검하수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社說

예산 때문에 교원 명예퇴직조차 못해서야

각급 학교에서 명예퇴직(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가운데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당국이 명퇴에 필요한 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명퇴를 신청한 광주·전남 교원은 모두 136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퇴직할 교원은 광주가 신청자 58명 중 45명(77.6%), 전남은 78명 가운데 10명(12.8%)에 그쳤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명퇴 수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세수 감소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복지에 산이 폭증하면서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장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퇴를 받아야 하는 광주시 교원 65억 원, 전남은 105억 3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15억 4600만 원, 전남도교육청은 93

억 7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해 악순환이 우려된다.

교원 명퇴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 이미 교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교사들로서는 수업이나 생활 지도에 대한 의욕이나 성의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또 신규 임용자를 제때 발령하지 못해 '청년 고충' 차질도 불가피하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광주·전남 150여 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154명이 교직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청년 취업 대책'의 하나로 교원 명퇴 확대 계획을 내놓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시·도 교육청이 관련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말로만 명퇴 활성화 방안을 외치고 구체적인 해법 없이 뒷짐만 지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얀 나비’ 김정호, 문화광주의 자산이다

올해는 ‘하얀 나비’ ‘이름 모를 소녀’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정호가 타계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1952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1985년 서른셋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중장년층에게는 인기가 수로 기억되지만 그 당시 남성듀오 ‘어니언스’의 히트곡인 ‘사랑의 진실’ ‘작은 새’ 등을 작사·작곡한 뮤지션이었다. 답답 출신 판소리 명창 박동실의 외손자인 그는 대표곡 ‘남’을 통해 가요에 국악적 요소를 접목시키기도 했다.

그의 타계 3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0일 모교인 광주 수창초등학교에서 ‘김정호 추모 음악회’가 열린다. 한국 가수협회 광주지회와 지역 인사들이 주축이 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그와 오랜 인연을 나눴던 동료 가수들이 출연해 그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2일 광주시의회 주최로 ‘도시재생 차원의 하얀 나비 김정호 거리 조성’을 위한 토론회도 열린다. 그가

태어난 북동 성당 일대를 김정호의 순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다.

사실 이 같은 김정호에 대한 관심은 때늦은 감이 있다. 한국 포크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가객이자 요절한 싱어송라이터라는 이유로 자주 비교되는 대구 출신 김광석(1964~1996)과 너무 위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구 대동봉 일대 약 400여m 구간엔 조성된 ‘김광석 거리’는 대중가수의 이름을 딴 거리로는 전국 최장이다. 도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었던 회색빛 거리를 그의 삶과 음악을 덧입혀 매년 60만 명이 다녀가는 화사한 문화명소로 키워냈다.

그런 점에서 김정호 추모음악회와 거리는 문화 광주의 자산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엔 그의 삶과 음악을 잘 녹여낸 콘텐츠와 상설 볼거리 등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가 전제돼야 한다. 문화의 시대, 결국은 사람이 브랜드다.

無 等 鼓

‘잔망스럽다’는 말의 뜻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였다. ‘알뜰도록 맹랑한 데가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은 황순원 선생의 단편 ‘소나기’의 결말 부분엔 등장한다. “그런데 참, 이번 계절엔 어린것이 여간 잔망스럽기가 않아. 글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소설 단편이 끝났음에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물레 다시 소나기를 읽는 딱 한 학생이 있게 된 것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소녀는 윤초시네 증손녀였죠. 소년 이 소녀를 처음 본 것은 개울가였죠’로 시작하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들이 기억된다. 김씨는 최근 기차와 통화에서 ‘나무 감동한, 그리고 누구나 아는 소설이었기에 과감하게 노래로 만들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산문화재단과 교보문고가 소설가 황순원(1915~2000)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아 10월1일부터 소설 그림전 ‘황순원, 별과 같이 살다’를 연다. 이 지역 출신 송필을 비롯한 주요

‘소나기’

화가들이 황 선생의 단편을 읽고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방간은 마음에 소나기가 실린 80년대 교과서를 찾기 위해 계림동 헌책방 거리를 뒤졌으나 허사였다. 그 대신 ‘소나기’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랑과 돌연 쏟아진 소나기가 모티브로 설정돼 있는 알퐁스 도데의 ‘별’이 수록된 1991년 판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찾아냈다. 그런데 책값을 치르고 나오자 헛웃음이 나왔다. 마음에 그려진 ‘소나기’를 헌책방에서 찾고 있었으니.

/윤영기 문화미디어부장 penfoot@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고영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디 자 인 실 2200-53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76)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